

20대 가구 소득 뒷걸음질

2012대비 월평균 8만2000원 ↓

3년 동안 소득 3.2% 감소

청년실업·근로소득 급감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최근 3년 동안 20대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가구가 평균 7% 이상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20대 가구만 3% 넘게 줄었다.

20일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자료를 뉴시스가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29세 이하인 1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246만6000원으로 2012년(254만8000원)에 비해 8만2000원이 줄었다.

기구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대가 유일했다. 20대 가구 소득은 2013년 14% 증가한 이후, 2014년 -13.1%, 2015년에는 -3.0%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가구 소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386만8000원의 월 평균 소득을 기록한 30대 가구는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417만5000

원으로 올랐다. 40대 가구도 33만5000원, 50대 가구는 38만8000원, 60대 이상 가구는 13만6000원 증가했다.

30대 이상 가구가 7.6%~12.0%의 증가를 기록한 것과 달리 20대 가구만 3.2% 줄어든 것이다.

20대 가구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높은 청년 실업과 함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기구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임금이 줄어든 데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대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2년 209만원에서 2013년 233만3000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4년 202만9000원, 2015년에는 187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317만8000원에서 349만원으로 증가했다. 20대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상용직 근로자 임금의 65% 수준에서 53.7% 수준 까지 떨어진 것이다.

근로 소득의 감소는 늘어나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160만 가구 ‘빚 내서 빚 갚아야 할 판’

한계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월리금상환액 비율 104.7%

160만 가구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소득만 가지고는 월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서는 또다른 빚을 내거나 자산을 처분해야만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 차치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금융부채가구는 1069만8000가구로 이 중 한계가구는 158만3000(14.8%)가구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월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132만5000 가구였던 한계가구는 불과 3년새 25만8000가구가 늘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계가구의 채무상

환능력이다.

지난해 기준 한계가구의 연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7만원, 월리금상환액은 4160만원이다. DSR이 104.7%다.

한계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1억5043만원으로 연 처분가능소득의 378.6%에 달하고 금융자산은 5779만원보다 2.6배 많다.

현실적으로 한계가구가 소득만으로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거나 실물 자산을 처리해야만 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연구위원은 “미시경제 차원에서 볼 때 한계가구의 DSR이 104.7%에 달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처분가능소득으로 소비생활까지 병행해야 함을 감안하면 삶의 질 하락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가구 축소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출형 대책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소득 감소, 거치기간 종료 등의 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이 폐낸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신규 채용된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64%였다. 2007년 청년 신규채용 비정규직 비율이 54.1%임을 감안할 때 8년 새 약 10%포인트 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청년 실업도 2012년 7.5%에서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에는 9.2%로 올랐다.

소득이 줄면서 소비도 빠르게 감소했다. 2012년 178만8000원을 기록한 소비는 지난해 158만5000원까지 감소했다. 가구 소득이 준 것도 29세 이하 가구가 유일했다.

소비 내역을 보면 의·식·주 가운데 주(주거비)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2012년 25만9000원을 기록한 주거비는 지난해 28만2000원으로 줄었다.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1%에서 17.8%로 올랐다.

반면 식료품비는 같은 기간 18만9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2만2000원 줄었다. 의류비도 18만6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5만5000원 감소했다.

/이성주 기자



kt 전북본부는 19일 도내 12개 학교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다.

kt 전북본부, 도내 12개교 금잔디 등 심어

kt 전북본부(본부장 오민수)는 지난 19일 도내 12개 학교에 자산홍연산 흰꽃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빨리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약 10일정도 앞서 추진

했다.

오민수 본부장은 “일부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학생들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앞으로도 식목행사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올봄 야외활동 의류

‘아웃도어’ 보다 ‘골프복’ 잘 팔린다

3월 들어 날씨가 한층 포근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위한 의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등산 등 ‘아웃도어’ 의류보다 ‘골프웨어’ 매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G마켓에 따르면 올해 3월(1~17일) 의류 품목 매출을 살펴본 결과, 골프복 매출은 전월 동기 간보다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자전거 등 아웃도어 매출 상승률(18%)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 골프복은 61%, 여성 골프복은 46%, 여성 골프의류·잡화는 27% 매출이 증가했다.

G마켓 관계자는 “골프에 관심 갖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골프복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골프복이 평소에 입을 수 있는 디자

인으로 많이 출시된 점도 성장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선에서도 같은 기간 아웃도어 관련 품목보다 골프 관련 의류·용품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골프 관련 클럽·의류·용품의 전체 매출은 지난 달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산·아웃도어 매출은 30% 상승했다.

풀모벌로는 남성 골프의류가 31%, 여성 골프의류가 99% 증가했다. 골프백과 골프화는 각각 72%, 73% 늘었다.

온선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대비해 골프웨어와 아웃도어 상품을 찾는 고객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롯데호텔월드, ‘올 인 스프링...’ 3종 출시

롯데호텔월드는 봄들이 시즌을 맞아 21일부터 6월30일까지 ‘올 인스프링(All in Spring) 패키지’ 3종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스프링Ⅲ 패키지’는 슈페리어 객실 1박과 롯데시네마 관람권 2매, 풀서비스 치맥세트, 멜리카한스 또는 라운지 앤 브라세리 1만원 이용권을 제공한다. 가격은 23만8000원이다.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스프링Ⅲ 패키지’는 성인 2명과 소인 1명 기준의 슈페리어 객실 1박과 라세느 석식 뷔페 3인 이용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3회를 담았다.

객실 1박과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2인 이용권, 피크닉 박스 1개, 멜리카 한스 또는 라운지 앤 브라세리 1만원 이용권을 담았다. 가격은 23만8000원이다.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스프링Ⅲ 패키지’는 성인 2명과 소인 1명 기준의 슈페리어 객실 1박과 라세느 석식 뷔페 3인 이용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3회를 담았다.

/이성주 기자

진안농협 하나로마트, 2주년 경품대전!

진안농협 하나로마트 대표전화 : 053-433-1022
문진코너 : 053-430-3655
수선코너 : 053-430-3656
네이버카페 : 053-430-3658
영업시간 : 06:30 ~ 22:00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농산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베트남에 딸기 수출

롯데마트는 오는 25일부터 국내 대형할인점 최초로 베트남에 국산 딸기를 수출 및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베트 수출 전문 농업법인인 한국벼슬수출사업단과 연계해 선정한 ‘메항’ 딸기 품종을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롯데마트 3개 점포(남사이아공점·편빈점·푸토점)에서 판매한다.

첫 수출물량은 약 1t량이다. 판매 실적에 따라 리오데(제주문) 물량을 확대 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딸기 수요가 많은 나라로, 최근 풍부한 당도의 국산 딸기가 베트남 현지에서 인기 괴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국산 딸기의 가격은 1kg당 40만원(한화 약 2만840원)이다. 베트남 딸기보다 4배 정도 비싸다.

/이성주 기자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개점 2주년 행사를 진행 합니다.

진안농협하나로마트에서 기분좋은 한해를 시작하세요!

▶ 응모기간 : 2016/3/1(화) ~ 3/23(수), 23일간

▶ 추첨일시 : 2016/3/24(목), 오후2시, 하나로마트 주차장

당일 3만원이상 구매시 응모권을 드립니다!

* 대상~7등 당첨자는 칭석자녀에 한해 경품지급

* 중복당첨 시 상위당첨품만 지급

* 미성년자 참여불가, 신분증·차량

* 전체 당첨자명단은 3/25(금)오전9시 이후 게시판 공고

*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취득세 및 기타옵션

* 8등~행운상은 추첨후 1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무효처리

* 상기경품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제공과 상이하여, 경품은 대체될 수 있음

▶ 무료배달 서비스 안내!

▶ 배달조건 : 3만원이상(진안읍)
5만원이상(진안군 전 지역)

▶ 결제방법 : 현금/카드 결제 가능

▶ 배달신청 : ☎ 063) 433-1022

진화수도시 자체한 품목 및 규격 제시해주시고, 물품 접수시 직원들과 상의하시면 필요한 시간에 배달 해드리겠습니다.

주소 : 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50

진안농협 하나로마트

진안농협 개점 2주년

할인 + 경품대전!

기아자동차 모닝(오토)

1등 1명

2등 1명

3등 1명

4등 1명

5등 1명

6등 1명

7등 1명

8등 1명

9등 1명

10등 1명

총 123 분께 행운이!

8등 미샘햇쌀 20kg (15명)

9등 미샘햇쌀 10kg (20명)

10등 손잡이 시장바구니 (20명)

행운상1 진안농협하나로마트 이용권 (50명)

행운상2 소머리(거세) (5명)

비씨/롯데카드 사용행사!

비씨카드 LOTTECARD
5/1(화)~5/31(일) 소비누적
비씨카드 또는 롯데카드
5/1(화)~5/31(일) 결제시
리온 보양진 컨디셔너 증정!